

# 전주 '테이블웨어' 산업 구축, 한식 경쟁력 강화

(식탁문화)

## 한옥마을에 명물거리 조성 옹·목기 등 체험 역사관 건립 미술랭가이드 등재 지원도

전주시가 2021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한옥마을 일대에 '테이블 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테이블 웨어' 산업은 식탁에서 쓰이는 테이블보와 조명, 식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탁문화 산업을 말한다. 음식과 함께 테이블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주시는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

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인 전주는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히면서 관련 산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전주시는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옹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살피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전주만의 음식 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한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기존 전주 한식

당 9곳보다 늘어난 30곳의 미술랭가이드 등제도 지원하고 있다.

이성원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전주 한식 세계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유망 한식당 미술랭가이드 도전사업과 융복합(음식·문화·산업) 음식산업인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한식 세계화와 산업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을 초청, 한식의 세계화와 현대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가졌다. 조 회장은 미술랭가이드가 인정한 한식당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도자기를 재해석한 생활식기도 선보이고 있다. 백세종 기자

## 전주시, 서학동예술마을 주민역량 강화 위해 광주시 사례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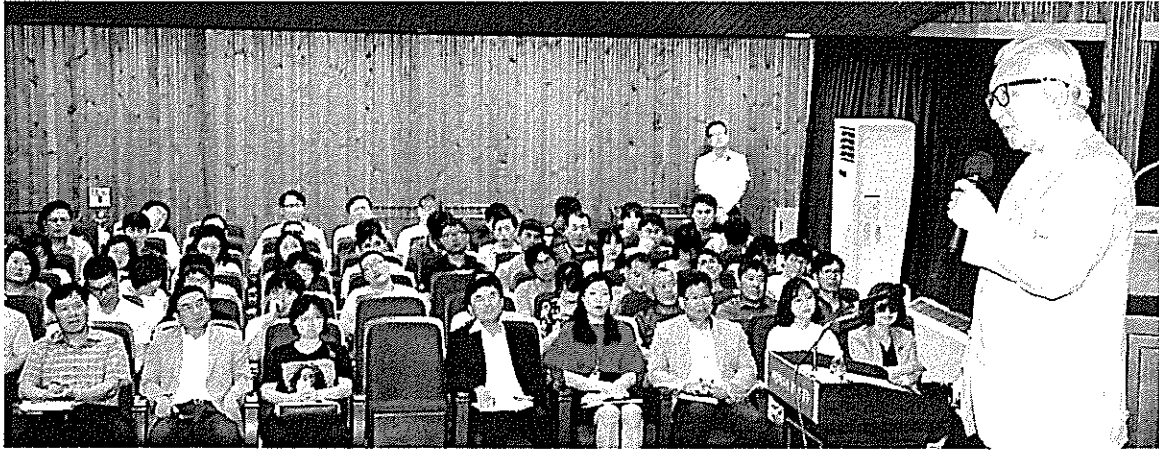
'미래유산' 제1호 사업인 서학동예술마을 재생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시가 주민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19일 마을재생대학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서학동예술마을 주민 40여명과 함께 광주광역시 남구 역사문화마을과 북구 시화문화마을을 방문했다.

광주 남구 역사문화마을과 북구 시화문화마을은 서학동예술마을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이날 견학에 참석한 주민들은 타 지역의 재생사례를 견

학하고 마을재생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를 다졌다.

마을재생대학은 마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마을재생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교육으로, 8월 말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교육과정 중 남은 8강에서 주제별로 팀을 구성, 해당분야 전문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는 19일 '6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및 미술랭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신상기 기자

## 전주에 '테이블웨어클러스터' 조성

식탁에 쓰이는 식기류·테이블보 등 음식문화산업 육성  
 市, 300억 투입... 우수 한식당 '미식가이드북' 등재도

'맛의 보고장'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전주시는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 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이 시민 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감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

제를 키우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9곳의 미술랭가이드 등재도 지원하고 있다. 미술랭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9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술랭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술랭가이드 등재를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한성천 기자

#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관광경제 육성 나선다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300억원 투입

맛의 본고장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관련사진 2면〉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문화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또한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용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9곳의 미술랭가이드 등재도 지원하고 있다.

미술랭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9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술랭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술랭가이드 등재를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술랭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한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뤄내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6월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과 미술랭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조태권 광주요 그룹 회장이 강사로 초청돼 미술랭가이드에 도전하고 있는 외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조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식 세계화 성공의 열쇠는 역사와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만큼,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함축된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현 기자(nhkim@)

# ‘전주 한식의 세계화’ 열쇠를 공유하다

2021년까지 300억원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계획  
조태권 회장 초청 특강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을 포함하는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관광경제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한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전주시는 19일 '6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국내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 조태권 광주요그림 회장의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전주시 제공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용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술평가이드 등재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미술평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한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6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및 미술평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 조태권 광주요그림 회장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미술평가이드에 도전하고 있는 외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 회장은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전통 한식 사업이 미술평가이드 스타 레스토랑 등재를 통

해 세계로부터 한식문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한식 세계화 성공의 열쇠는 역사와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만큼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함축된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이성원 관광산업과장은 "전주시가 전주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유망 한식당 미술평가이드 도전사업과 음식·문화·산업의 융복합 음식산업인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협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 추락했던 '전주대사습놀이' 재도약 의지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토론회  
9월 8일 무형유산원동 열려

전주대사습놀이가 전국대회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심사위원 뇌물파동으로 추락의 기로에 섰던 대사습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 대회로 변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올해 9월 열릴 예정인 대사습 대회와 관련, 대회 운영방식을 비롯해 심사제도, 청중평가단 운영 등이 나올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종민 전북대 교수를 좌

장으로 1부 발제는 최동현 군산대 교수의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손태도 한국판소리학회 부회장의 '전주대사습 전국대회 운영방식 개선방향', 이희병 동국대 겸임교수의 '심사제도 개선안 제안', 황일묵 전주 MBC 편성제작국장의 '청중평가제 도입 운영에 대한 실무적 견해' 등이 이어진다.

2부 토론에는 대사습보존회 관계자, 전국대회 경연 참가자, 심사위원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여해 '운영방식 개선사항', '심사제도 개선안', '청중평가단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전주시는 6월 조직위원회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혁신방안과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마련된 혁신안을 바탕으로 취소된 대동령상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그동안 대사습을 둘러싼 양극과 다툼을 멈추고 대사습 발전을 위해 함께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경연 일정안이 발표됐다. 올해 대사습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조석창기자

# 전주시, 세입자 집값 · 이사걱정 덜어준다

## 주거 취약계층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본격 추진 저렴한 임대료 · 장기간 거주 보장으로 주거안정 도모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공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자산과 민간

의 역량을 합친 민관협력이 사업의 핵심으로, 시에서 토지(건물)매입비 5억원(감정평가기준) 이내의 토지(건물)를 매입해 제공하면 사업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운영하게 된다.

시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시세의 80%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세입자의 집값걱정과 이사에 대한 고민 등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

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택을 건립하거나 매입 후 주거 취약계층이 지불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오는 28일 전주시혁신센터 1층 교육실에서 사업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진행 절차 등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회주택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진 개요, 추진 절차, 진행 일정 등에 대한 설명, 향후 사회주택으로 활용될 동완산동 시 소유 주택에 대한 소개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사업자 공모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전주형 사회주택이 공급되면 입주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져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 80%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며 "이사걱정, 임대료부담,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살기 좋은 사회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규진기자

# 전주시 테이블웨어 음식문화산업 육성

## 한식 세계화 위한 클러스터 조성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를 지역 음식문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시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여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사용되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 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가미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 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

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비롯 테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용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슐랭가이드 등재를 지원하고 있다.

미슐랭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30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슐랭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등 시설을 견학하고 미슐랭가이드 등재를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슐랭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한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뤄내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규진기자

#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구축으로 관광경제 육성

市, 전주 한식 세계화 '한식 세계화 전도사' 광주요 그룹 조태권 회장 초청 특강  
지역 음식문화육성 및 맛의 본고장 위상 강화... 테이블웨어 클러스터구축 추진

맛의 본고장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시는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여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가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문화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공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안정신아 시안생활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법밥과 콩

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품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용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술관 가이드 등재도 지원하고 있다.

미술관 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30곳의 전주한식당 오너대표들은 국내 미술관 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술관 가이드 등재를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술관 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 한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

워내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6월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과 미술관 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광주요 그룹 조태권 회장이 강사로 초청돼 미술관 가이드에 도전하고 있는 외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조 회장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접종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한식 사업이 미술관 가이드 스타 레스토랑 등재를 통해 세계로부터 한식문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한식 세계화 성공의 열쇠는 역사와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민중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함축된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형기자/chose6474@hanmail.net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불안 해소

市, 28일 사업자·일반시민 대상 사업설명회... 내달 10일부터 45일간 공모신청 접수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화 한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 후 주거취약계층이 지불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공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 공급 사업은 공공자

산과 민간의 역량을 합친 민·관 협력이 사업의 핵심으로 시에서 토지(건물)매입비 5억원(감정평가기준) 이내의 토지(건물)를 매입해 제공하면 사업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약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운영하게 된다.

시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세입자의 집값걱정과 이사에 대한 고민 등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주시혁신센터 1층 교육실에서 사업자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진행 절차 등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도 열

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사회주택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진 개요, 추진 절차, 진행 일정 등에 대한 설명, 향후 사회주택으로 활용될 동완산동 시 소유 주택에 대한 소개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시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사업자 공모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사걱정, 임대료부담,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살기 좋은 사회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형기자/chose6474@hanmail.net

# 식탁용 테이블 웨어 집적화 통해 산업화

## 전주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키로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 300억원 투자

맛의 본고장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강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안정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품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테이블로 한국 그릇과 용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 미술랭가이드 등제도 지원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술랭가이드 등제도 지원하고 있다.

미술랭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30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술랭가이드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술랭가이드 등제를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술랭가이드에 등제되는 전주한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뤘내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6월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과 미술랭가이드 등제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조태권 관주요 그룹 회장이 강사로 초청돼 미술랭가이드에 도전하고 있는 외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인재용 기자

# 팔복새뜰마을 30년 이상된 40여 노후주택 개선 추진

## 전주시, 집수리 선정위원회 구성... 9월부터 공사 착수

낙후된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팔복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40여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팔복동 준공단지 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18년까지 국비 50억원 등 총 71억 원을 투입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팔복새뜰마을 사업대상 지역인 추천마을 내 건축물 소유자 중 도배와 장판 등 내부 집수리 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으로, 시는 지난 2월 신청 접수

및 기초조사를 거쳐 40여 가구의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향후 집수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 세대와 우선순위, 집수리 공사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용역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집수리 사업의 지원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비용의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가구는 50%의 자부담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슬레이트 지붕 개량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가구는 30%의 자부담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1차 집수리 사업 대상인 40여 가구의 집수리 공사·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총 2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본격화

## 시, 서민주거 안정 위해 공공자산·민간 역량 모아 주택 건설·리모델링 시범 공모 추진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공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자산과 민간의 역량을 합친 민관협력사업의

핵심으로, 시에서 토지(건물)매입비 5억원(감정평가기준) 이내의 토지(건물)를 매입해 제공하면 사업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운영하게 된다.

시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시세의 80%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세입자의 집값격정과 이사에 대한 고민 등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주시혁신센터 1층 교육실에서 사

업자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진행 절차 등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는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사회주택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진 개요, 추진 절차, 진행 일정 등에 대한 설명, 향후 사회주택으로 활용될 동완산동 시 소유 주택에 대한 소개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시는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사업자 공모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전주형 사회주택이 공급되면 입주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해져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세 80%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사걱정, 임대료부담,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살기 좋은 사회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는 '6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과 미술랭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 전주시 음식문화산업 육성 시동

## 2021년까지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계획 공역시설 · 명물거리 조성, 역사관도 건립

맛의 본고장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시는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

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 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용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술랭가이드 등재도 지원하고 있다.

미술랭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 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30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술랭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도어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술랭가이드 등재를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술랭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한

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뤘내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6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및 미술랭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이 강사로 초청돼 미술랭가이드에 도전하고 있는 의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조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한식 사업이 미술랭가이드 스타 레스토랑 등재를 통해 세계로부터 한식문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라며 "한식 세계화 성공의 열쇠는 역사와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만큼,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함축된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 전주의 맛에 멋을 더한다

市,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구축 추진 통해  
지역 음식문화 산업 육성·위상 강화 도모  
19일 조대권 평주요 회장 초청 특강 개최

맛의 본고장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범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시는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여 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문화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

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용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술랭가이드 등제도 지원하고 있다.

미술랭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30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술랭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레터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술랭가이드 등제를 위한 역할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술랭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한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뤄내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6월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 홀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과 미술랭가이드 등제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조태권 평주요 그룹 회장이 강사

로 초청돼 미술랭가이드에 도전하고 있는 외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조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한식 사업이 미술랭가이드 스타 레스토랑 등제를 통해 세계로부터 한식문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한식 세계화 성공의 열쇠는 역사와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만큼,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함축된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조태권 회장의 한식에 대한 철학과 성공경험이 전주 한식 세계화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주시가 전주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유망 한식당 미술랭가이드 도전사업과 융복합(음식·문화·산업) 음식산업인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협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은 한식당 가운과 비체나를 운영하면서 한식의 우아함과 멋스러움을 갖춘 수준 높은 코스 요리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며, 적자요리 내면서도 신념을 갖고 추진해온 한식당들은 올해 미술랭가이드로부터 4개(가운 ★★★, 비체나 ★)의 별을 받았다.

/이강호 기자

# 팔복새뜰마을 노후주택 개선 추진

30년 이상된 주택 40여 가구  
집수리·슬레이트 지붕 개량

낙후된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팔복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40여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팔복동 준공업지역 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A=4만8,000㎡)을 대상으로 오는 2018년까지 국비 50억 원 등 총 71억 원을 투입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팔복새뜰마을 사업대

상지역인 추천마을 내 건축물 소유자 중 도배와 장판 등 내부 집수리 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으로, 시는 지난 2월 신청 접수 및 기초조사를 거쳐 40여 가구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약 50일간 집수리 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 대상의 주택별 주거상태 조사와 우선순위 수립, 개보수의 적정성과 주거환경 및 실태에 대한 주민 컨설팅 자문 등을 거쳤다.

시는 향후 집수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대상 세대와 우선순위, 집수리 공사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실질적용 용역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집수리 사업의 지원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비용의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가구는 50%의 자부담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슬레이트 지붕 개량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가구는 30%의 자부담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1차 집수리 사업 대상인 40여 가구의 집수리 공사·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총 2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되는 새뜰마을 사업의 집수리 지원규모가 그간 진행돼온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의 지원규모보다 큰 만큼, 오는 2018년 진행될 2차 사업 선정 시에는 신청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평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집수리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여건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될 것"이라며 "팔복새뜰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추천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호 기자

#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구축 '집중'

## 전주시, 한식 세계화 전도시 특강... 발전방안 공유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식 세계화 전도시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했다.

따라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

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여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

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건문화제를 보유한 도시로서 정인영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을러 시는 세계가 인정할 비법

발파 풍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 지역의 강점을 다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술갤러리드 등제도 지원하고 있다. 미술갤러리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30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술갤러리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레터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술갤러리드 등재를 위한 역할을 키우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국제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조태권 광주요 그룹 회장이 강사로 초청돼 미술갤러리드에 도전하고 있는 외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임종근 기자 · jk033@naver.com



전주시는 19일 '6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및 미술랭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 “천년 전주의 맛을 세계의 맛으로”

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지역 음식 문화 산업 육성

맛의 본고장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시는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세계가 인정하는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서 판매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옹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

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9곳의 미술랭가이드 등제도 지원하고 있다.

미술랭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9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술랭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술랭가이드 등재를 위한 역할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술랭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한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뤄내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6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및 미술랭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맛의 고장...전주 한식 세계화 박차

## 연간 1,000만명 관광객 방문 유네스코 지정 음식도시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구축...관광경제 적극 육성 방침

맛의 보고장인 전주사가 사기류와 테이블보, 조범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시는 지난 19일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원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원육머출 인근에 약 30억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가구와 사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문화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물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세계가 인정한 바밀법과 불나들국밥, 백반, 안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자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

를 키우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역 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품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용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음식

문화 육성과 원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술생가이드 등제도 지원하고 있다.

미술생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사기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30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술생가이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

리어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술생가이드 등재를 위한 역할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술생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한식당이 많아지면 원식의 세계화를 이끄는 미술생가이드도 육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6월 청원공감한 다면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과 미술생가이드 등 지원 등의 일환한 사업 추진을 위한 '원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기업으로 원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조태권 광주유니그룹 회장이 강사로 초청돼 미술생가이드에 도전하고 있는 외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조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전통 한식음 문화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원식 사업이 미술생가이드 스타 레스토랑 등재를 통해 세계로부터 한식문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원식 세계화 성공의 열쇠는 역사와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만큼 창조력의 창의 지혜가 함양된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전주시가 전통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사 유망 한식당 미술생가이드 도전사업과 융복합(음식·문화·산업) 음식산업인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협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 회장은 한식당 가운과 비제타를 운영하면서 원식의 우아함과 맛스파를 선보이고 있으며 저자별 내명서도 신념을 갖고 추진해온 한식당들은 올해 미술생가이드로부터 사계(기운 ★★, 비제나 ★)의 별을 받았다.

특히 조 회장은 한식분야 뿐만 아니라 전통도자기를 재탄생하고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생활식기를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자기와 전통주 분야에서 도전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전주의 맛, 세계를 사로잡다’

## 시, ‘한식 세계화 전도사’ 조태권 광주요 회장 초청특강 개최 우수 한식당의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 등재도 지원

한국 맛의 분향인 전주시가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지역 음식문화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전주시는 한식문화산업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한옥마을 인근에 약 300억 원을 들여 테이블웨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테이블웨어는 식탁에서 쓰이는 기구와 식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마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이면 세계 테이블웨어 산업 시장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또한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

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세계가 인정한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에서 생산된 각종 테이블웨어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역시설을 조성하고, 테이블웨어 명물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테마별로 한국 그릇과 용기, 목기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확인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역사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만의 음식문화 육성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해 전주한식당 30곳의 미슐랭가이드 등재도 지원하고 있다.

미슐랭가이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식가이드북으로, 도전에 나선 30곳의 전주한식당 오너셰프들은 국내 미슐랭스타 레스토랑의 메뉴와 맛, 서비스를 경험하고,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등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슐랭가이드 등재를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시는 미슐랭가이드에 등재되는 전주한식당이 많아지면 한식의 세계화를 이뤄내고, 글로벌 미식관광 활성화로 지역 테이블웨어 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6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를 열고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과 미슐랭가이드 등재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식 세계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기업으로 한식 세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조태권 광주요 그룹 회장이 강사로 초

청돼 미슐랭가이드에 도전하고 있는 의식업체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들과 전주한식의 세계화 방안을 공유했다.

조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한식 사업이 미슐랭가이드 스타 레스토랑 등재를 통해 세계로부터 한식문화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한식 세계화 성공의 열쇠는 역사와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만큼,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함축된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전주시 관광산업과장은 “전주시가 전주 한식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유망 한식당 미슐랭가이드 도전사업과 응복합(음식·문화·산업) 음식산업인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협업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본격화

## 공공자산·민간 역량 결합 ‘전주형 사회주택 시범 공급사업’ 본격 가동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화한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 후 주거취약계층이 지불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함께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공모를 거쳐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자산과 민간의 역량을 합친 민관협력이 사업의 핵심으로, 시에서 토지(건물)매입비 5억원(감정평가기준) 이내의 토지(건물)을 매입해 제공하면 사업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임대주택·운영하게 된다.

시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세입자의 집값걱정과 이사에 대한 고민 등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주시사회혁신센터 1층 교육실에서 사업자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진행 절차 등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는 사업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사회주택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진 개요, 추진 절차, 진행

일정 등에 대한 설명, 향후 사회주택으로 활용될 동완산동 시 소유 주택에 대한 소개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사업자 공모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형 사회주택이 공급되면 입주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거불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세 80%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사걱정, 임대료부담,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살기 좋은 사회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